

국 어

해설위원 : 오 대 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가직 9급 국어 출제 영역]

출제 영역	출제 문항수 (2015)	출제 포인트(난도)
국문법	3(4)	[품사론]-보조사(中) '는' [어휘론]-고유어(上) '안갠음' [문장론]-주성분(下) '관형절'
어문규정	3(4)	[표준어]-콧방울(中) [띄어쓰기]-조사(下) [외래어표기법]-[j](下)
속담과 한자	3(2)	[잘못된 한자]-간섭(干涉)(中) [한자어]-유의어와 상대어(上) '扶桑' [한자성어]-事必歸正(下)
비문학	6(7)	[말하기-대답의 내용 파악](中) [쓰기-퇴고](中) [쓰기-제목](中) [독해-추론](中) [독해-궁극적 내용](中) [독해-추리](中)
문학	5(3)	[현대시] 시구의 의미(下) '엄마 걱정' [현대시] 시어의 의미(上) '귀천' [현대소설] 서술자(下) '만세전' [현대소설] 표현기법(下) '몰두' [고전수필] 주제(下) '경설'

[총 평]

1. 누군가는 어려웠을 것
누군가는 어려웠고, 누군가는 그래도 해볼 만했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5 년도의 출제 수준에 비한다면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를 해야겠다. **어휘나 한자 문 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비문학이나 문학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독서력이 떨어지는 수험생들을 낭패스럽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 때는 전반적으 로는 쉽게 느끼고 실제 결과는 마뜩잖은 경우가 더러 있으리라 예상된다.**
2. 국문법의 약세, 문학의 약진
국문법에서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최소 4문제 정도는 차지하는 분야인 데, 보조사, 고유어, 문장성분 3문제만 출제되었다. 이 가운데 **고유어 '안갠음'이 여러 수험생들을 울린 것으로 조사된다.** 이전처럼 전후 맥락을 보면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안갠음'의 유사한 표현으로 착각한 수험생들이 많았 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보조사나 문장성분 문제는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에서는 5문제나 출제되어 역대 국가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 시로 기형도의 '엄마 걱정' 과 천상병의 「귀천」 두 작품을 제시해, 시구와 시어의 의미를 물었다. 그리고 성석제의 「몰두」 와 염상섭의 「만세전」 을 제 시해 해학적 요소와 서술자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고전수필도 이전에 출제되었 던 이규보의 「경설」 을 다시 등장시켰다. 문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수험생들을 많이 힘들게 했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 쉽지만 정작 시험을 보는 당시에는 그 의미가 잘 안 다가설 수 있는 문학은 독서력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어렵게 할 만했다.**
3. 평이한 수준의 비문학 문제
비문학이라 표현하는 논리적인 글들은 6문제나 출제되었는데,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말하기로 대답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쓰기 분야에서 퇴고문제, 제목을 찾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독해 문제로 추론과 추리,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평이한 듯하지만, 이 역시 도 잘못 생각하면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수능 문제와 많은 유사점이 보이는 문제들이었다.

4. 한자의 등장이 점수를 합격점을 낮출 것
오랜만에 국가직에 한자가 3문제나 등장했다. 최근 몇 년간 한자는 국가직에 출 제되지 않았고, 그것은 고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게 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한자 간섭(干涉)과 한자어 부상(扶桑)과 함지(陷地), 한자성어 사필귀정(事必歸 正)은 합격점을 낮추기에 충분하다. **쉬운 문제들이지만 9급 문제에서 한자들은 점수 폭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 왔다.**

5. 언제나 새로운 시작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다. **틀릴 만한 문제를 다 틀렸으면 80점 수준일 것이고, 그래도 선방을 한 수험생들은 90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출 문제의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이 다시금 등장하지만 출제 비중은 확정된 것이 없음을 다시금 확 인하는 시험이었다. **수험생들은 약한 분야를 공략할 수 있는 실력을 유지 않는다면 고득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직, 서울시 지방직, 7급 시험으로 이어지는 노정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매진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기출문제 해설]

문 0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01. [정답] ②

[어문규범-외래어 표기] 난도 下

새우를 뜻하는 'shrimp'는 [ʃrɪmp]라 발음된다. [j]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다음의 규정 사항과 관련을 맺는다.

어말의 [j]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j]는 '슈'로, 모음 앞의 [j]는 뒤따르는 모음 에 따라 '샤',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i]'라는 모음 앞의 [j]이므로 '시'로 써야 옳다. 그래서 '시림프'라고 써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flash - 플래시: 어말에 쓰인 [j]는 '시'로 적어야 하므로 '플래시'가 맞다.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pre-]'와 같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적도록 한다. 프리젠테이션(X), 프레젠테이션(X)
- ④ Newton - 뉴턴: 'newton'은 [nju:ˈtɒn]이라 발음되므로 '뉴턴'이라 써야 옳다. 뉴톤(X)

문 0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였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02. [정답] ①

[국문법-보조사] 난도 中

문맥을 잘 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보조사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는'이라는 보조사는 몇 가지 다른 의미들이 있다.

1.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 소 따위의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사과를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2.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나는 학생이다.
3.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 조사.**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제시문은 대조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 어미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사가 쓰인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만'이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만'의 의미가 있다.

2.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3.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4.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짐재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5. ('-어도, -으면'의 앞에 쓰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너무 피곤해서 눈만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 ③ 제시된 문장의 '대로'가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로'의 쓰임이 있다.
- *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 ④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문 0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03. [정답] ④

[한자-한자성어] 난도 下

못된 짓을 했던 교씨의 사악함이 결국에는 만천하에 드러나 처형을 당하게 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게 된 것은, 잘못되었던 일이 결국에는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을 맺는 한자성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오답 피하기>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문 0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돌씩 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04. [정답] ①

[비문학-독해: 추론] 난도 中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 * 5만 원 중 2만 원을 받은 참가자: 덜 행복해 함
* 5만 원 중 2만 5천 원을 받은 참가자: 행복해 함
* 5만 원 중 3만 원을 받은 참가자: 2만 5천 원 사람보다 덜 행복해 함.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낌.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가장 행복해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인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는 ①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3만 원을 받은 사람이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은 경우라 볼 수 있는데, 과도한 보상에 부담을 느꼈다고 했으므로 맞지 않는 추론이다.
③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했다고 했으므로, 상대를 위해 양보한 것에 행복해 했다는 것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0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05. [정답] ②

[비문학-독해: 궁극적 내용] 난도 中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궁극적'은 '결국'이라는 표현과 관련되며, 필자가 결국 주장하는 바를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 ②이다.

<오답 피하기>

- ④를 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④가 답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은 로마를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를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며 '새로운 문명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라고 했다. ④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로마 유적'이라는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글의 취지에 어긋나고 말았다.

문 0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체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 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06. [정답] ㉓

[비문학-쓰기: 제목] 난도 中

제시문에서 주제문을 바로 확인하고 관련을 맺는 표현을 제목으로 선택하면 된다. 제시문에서 필자는 시인이 평화 시에는 문화의 비싼 장식이며,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민족의 예언가이며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가 된다고 했다. 시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인의 사명(使命: 맡겨진 임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 답으로 ㉓이 적절하다.

문 07. ㉑~㉔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㉑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㉒ 찬밥처럼 방에 담겨
㉓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㉔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 ① ㉑: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② ㉒: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③ ㉓: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07. [정답] ㉓

[문학-현대시 감상] 난도 下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의미가 옳고 그른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㉔의 표현은 시장에 장사하러 간 엄마를 화자가 숙제를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화자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 일부러 숙제를 천천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을 나타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㉑ '해는 시든 지 오래'라는 표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 ② ㉒의 '찬밥'은 찬밥 가난으로 누구도 돌보아 주지 않았던 유년의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㉒은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잘 드러낸 표현이다.
- ④ ㉔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을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 들리는 빛소리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 0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꽃처럼 여겨졌다.
- ④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08. [정답] ㉓

[문학-현대시 시어의 의미] 난도 上

천상병의 '귀천'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생을 긍정하고 죽음을 달관한 화자의 세계를 드러낸 작품이다. 밑줄 그은 '이슬'은 '노을'과 잠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순간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닌 인간의 삶을 드러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한바탕 꿈과 같은 인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택지에서 ㉓의 '꿈'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눈물'은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를 표현하는 것이다.(정한모, 「어머니」 중의 표현이다.)
- ② '나뭇잎'은 어린 아이의 웃음과 같은 것으로 밝고 맑은 것을 뜻한다.
- ④ '구름'은 얽매이지 않은 삶, 곧 자유로운 삶을 뜻한다.

문 0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09. [정답] ㉒

[한자-상대어] 난도 上

한자어 중 유의와 반의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을 가리키고 '함지(咸池)'는 해가 지는 곳을 가리킨다. 반의 관계를 이룬 어휘들이다. (『판동별곡』에 '扶桑桑上 咫尺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부상'과 반의어에 속하는 것이 '함지'라는 것을 공부한 수험생은 금방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에 비해 나머지는 유의 관계의 어휘들이다.

- * 부상(扶桑): 1. 해가 뜨는 동쪽 바다. 2.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다는 곳.
- * 함지(咸池):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

<오답 피하기>

- ① * 광정(匡正: 바를 정, 바를 정):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 * 확정(廓正: 둘레 확, 바를 정): 잘못을 바로잡음.
- ③ * 중상(中傷: 가운데 중, 상처 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 시킴.
- * 비방(誹謗: 헐뜯을 비, 헐뜯을 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④ * 갈등(葛藤: 칩갈, 등나무 등): 칩갈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 알력(軋轢: 삐걱거릴 알, 삐걱거릴 력):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문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10. [정답] ②

[비문학-말하기: 대담의 내용 파악] 난도 中

진행자는 김 교수가 설명해 주고 있는 관옥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고 있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마지막 문장에서** “관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여 진행자는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 ③ 앞의 부분에서 진행자는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김 교수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의 구체적 사례로 ‘관옥선’을 들어 소개했다.
- ④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자는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라고 하여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했다.

문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11. [정답] ④

[어문규범-띄어쓰기] 난도 下

‘조사’의 띄어쓰기를 물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④의 ‘**하고**’는 (구어체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경우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그것하고**’라고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스승이라기보다는’이라고 붙여 썼어야 한다.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여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② ‘황소같이’라고 붙여 써야 옳다. ‘같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 ③ ‘밥은커녕’이라고 붙여 써야 옳다. (반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에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보조사 ‘은’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문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갓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갓음: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12. [정답] ②

[국문법-고유어의 의미] 난도 上

문맥만으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유어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이다. 고유어의 의미를 풀 때는 우선 해석된 표현을 문장 속에 넣어 자연스럽게 운지를 확인하고, 비슷한 말 표현들을 떠올려 그 뜻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비슷한 표현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안갓음’을 대하면서 수험생들은 ‘안갓음’과 비슷한 표현이라 생각하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②의 해설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안갓음’의 의미가 명확한데, 이를 ‘안갓음’이라 쓰는 경우는 잘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문제를 안은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야 한다.

안갓음: 1.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2.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비슷한 말] 반포1(反哺).
 양갓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비슷한 말] 반보2(反報)·반보4(返報)·보구2(報仇)·보복2(報復)·보수10(報讐)·보원2(報怨)·복구1(復仇)·복보수.

<오답 피하기>

- ① 해미: 바다 위에 낀 아주 짙은 안개. [비슷한 말] 분기3(氛氣)·분침2(氛祲)·해매3(海霾). * ‘바다 해(海)’를 떠올리고, 해무(海霧)를 떠올렸다면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 ③ 불쌍: (흔히 ‘없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어원 : ←보 - + - ㄷ + 상(相), * ‘보다, 볼’에서 추리가 가능하다.
- ④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비슷한 말] 목가2(木稼)·무송·수가6(樹稼)·수가3(樹介)·수개3(樹掛)·수빙2(樹氷)·수상20(樹霜). * ‘서리 상(霜)’을 떠올려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한다.

문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별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콧밥**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판지**가 땅긴다.

13. [정답] ①

[어문규범-표준어] 난도 中

‘콧망울’이 표준어이고, ‘콧망울’은 비표준어이다. 이는 기출문제(2011. 국회직 8급)로 이미 나왔던 단어인데 수험생들 중에는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다. * 콧망울[코뿔망울/콧뿔망울]: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망울처럼 내민 부분.

<오답 피하기>

② ‘눈꼬리’와 ‘눈초리’가 복수 표준어로 최근 발표되어 표준어라는 것을 수험생들이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다른 점이 있으니 기억해 두어야 한다.

눈초리: 1.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2. [같은 말] 눈꼬리(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예) 눈초리가 올라갔다.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비슷한 말] 눈초리. 예) 눈꼬리가 처지다

③ 콧밥: 콧물. 콧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서 소리가 [귀뿔/귓뿔]으로 나므로 ‘귓뿔’으로 적고, 같은 의미인 ‘귓뿔’도 널리 쓰이므로 ‘귓뿔, 귓뿔’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한글 맞춤법 4장 4절 30항, 표준어규정 3장 5절 26항) 2. ‘귀지’의 의미로 ‘**귓뿔**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귀지**’만 표준어로 삼고, ‘**귓뿔**’은 버린다.(표준어 규정 3장 4절 25항)

④ 장판지: 종아리의 살이 볼록한 부분. [비슷한 말] 어복(魚腹)4. ‘장판지’의 의미로 ‘다리배’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장판지’만 표준어로 삼는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이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닮고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규보, 경설 중에서-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체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 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꼽 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꼭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 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9. [정답] ②

[문학-현대소설: 서술자] 난도 下

서술자에 대한 물음이다. 작품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1인칭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만세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문제는 주어진 부분에 나타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을 답으로 해야 한다. 주인공 '나'는 조선 노동자들이 협잡 부랑배에게 속아서 팔려 가는 상황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전지적 작가 시점
- ③ 작가 관찰자 시점
- ④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교차적 진술.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 기>

- 대화(1) ㉠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 **55 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 너 몇 살이니?

㉠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 점심은 뭐 먹을래?

㉠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20. [정답] ①

[비문학-독해: 추리] 난도 中

'대화에서의 언어 기능'에서 대화 원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해도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관련성의 격률'은 셋째 원리로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대화 (1)은 체중이 얼마나에 대한 답으로 '키'와 관련하여 가벼운 편이라고 했다. 이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킨 것이라 보아야 옳다. 위배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질의 격률'은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화 (2)는 시민 운동회가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이라 하여 진실하지 않으며 증거가 불충한 진술을 함으로써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
- ③ '양의 격률'은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원칙인데, 대화 (3)은 형의 나이까지 말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 ④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것인데, 대화 (4)는 '마음 내키는 대로'라고 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여 문제를 일으켰다.